USDA 장기 농업전망: 전망 배경 및 농가 소득

윤 영 석 *

1. 전망 개요

USDA 농업 전망 보고서는 2028년까지의 미국 농업 및 세계 농산물 무역에 대한 장기 전망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계 경제성장 장기전망과 인구 동향 등 농산물 시장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과 불확실성을 논의하고 있다. 전망에는 농산물 생산과 소비, 세계 농산물 무역과 미국의 수출, 상품 가격, 그리고 농업 소득 등이 포함되었으며, 거시경제, 농업 및 무역 정책, 기후조건, 국제 환경변화 등에 대한 세부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조건부 시나리오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농산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충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둘째, 추세적인 농산물 생산량을 담보하는 보통의 기후조건을 가정하였다. 셋째, 2014년 미국 「농업법」의 조항은 전망기간 유효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보고서에서 논의할 전망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매우 구체적인 가정과 향후 미국 농업 환경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이 전망 보고서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작성되었으며, 모델 결과와 추정에 기반을 둔 분석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

향후 몇 년 동안 미국 농업부문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분쟁에 순응해 나갈 것이다. 이로 인해 대두 생산 농가는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옥수수와 밀을 재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세계 수요는 이들 주요 곡물에 대한 비교적 안정적인 식부면적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산

* 강원대학교 박사학위과정 (jnu7213@gmail.com).
본고는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8'의 농업전망 가장 및 농가소득 전망을 번역 및 정리한 것임.

대두에 대한 수요는 세계 다른 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업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료비가 생산량 증가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농업과 미국의 농산물 무역 성장은 개발도상국의 소득 증가와 향후 10년간 상대적으로 강한 미 달러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세계 경제성장과 바이오 연료용 농산물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를 포함한다. 그러한 요인들은 농산물의 소비, 무역 및 가격의 장기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반된다. 세계 무역 경쟁은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미 달러화는 미국의 농산물 수출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농산물은 생산성과 품질경쟁력으로 인하여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주요 가정

2.1. 거시경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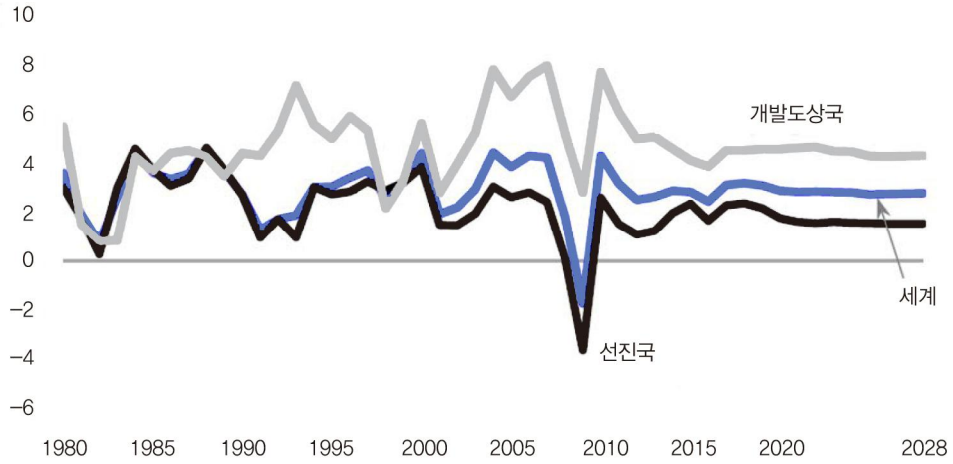
2.1.1. 경제성장

USDA의 장기 전망은 세계 경제가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선진국의 점진적인 성장 둔화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성장하지만, 점차적으로 저성장하는 경제성장 가정에 기반한다.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8-20년 연평균 3%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0-11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강력한 글로벌 성장세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장기 성장률은 중국과 다른 신흥 시장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일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로 인하여 2000년대 초의 성장률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계 실질 GDP는 1980년대와 1990년대와 대동소이 하지만 장기 금융위기 이전(1980-07년) 평균인 3.3%를 밑도는 연간 평균 2.8%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림 1>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

단위: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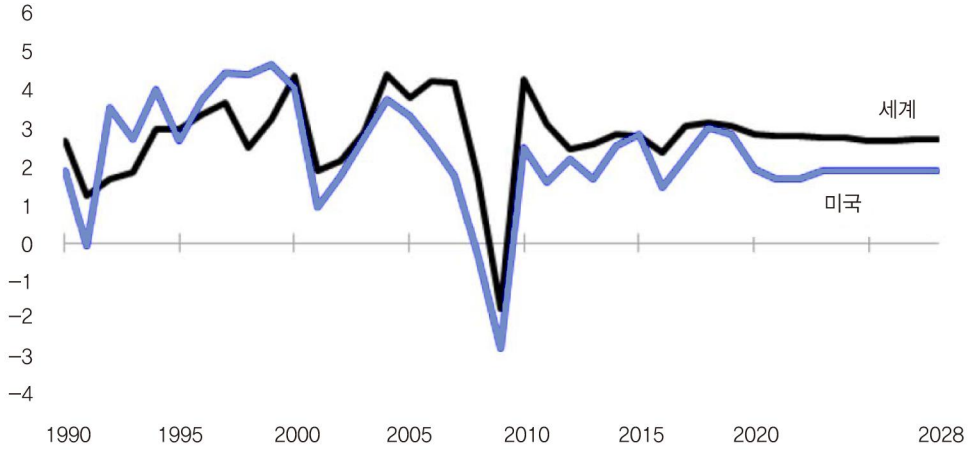


자료: USDA(2019). p.7.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의 단기 GDP 성장은 장기 추세적 성장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노동시장과 신용상태가 견고함을 갖추거나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강력한 소비자 수요와 기업 투자 수요를 견인할 전망이다.

<그림 2> 미국 및 세계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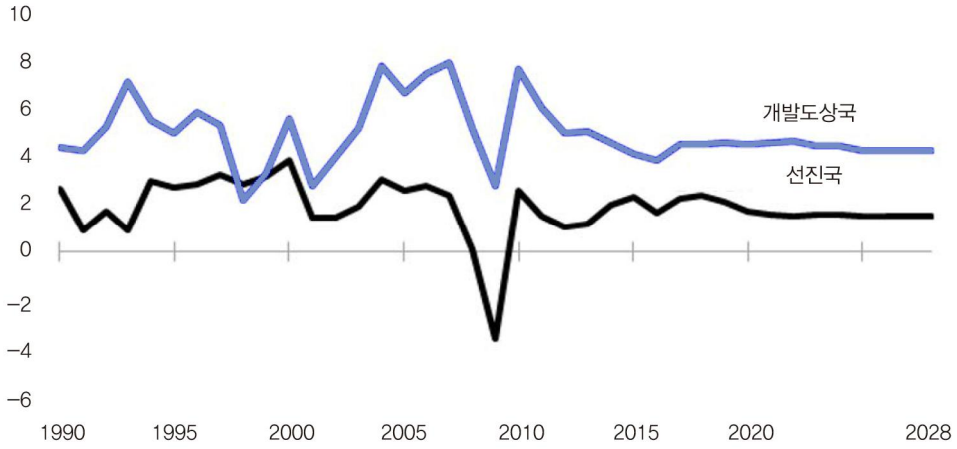
자료: USDA(2019). p.8.

통화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채무위기 시점에 시행된 경기부양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단기적으로 긴축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낮은 수준의 장기 성장률은 일반적으로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성장 둔화를 반영한다. 인구 구조적 변화는 노동 성장 둔화를 촉발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이민은 둔화속도를 완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상품 가격의 반등과 외부 환경 개선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강한 단기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최정점의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과 다른 주요 개발도상국들의 성장률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은 이들 국가들이 물질적, 경제적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자원 배분의 개선으로 인한 이점을 계속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성장률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자료: USDA(2019). p.9.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는 전망기간 연평균 4.4%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성장률은 최근의 성장과 비교하면 성장 둔화를 의미하지만, 여전히 선진국의 성장률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GDP) 점유율은 2019년 40%에서 2028년 45%로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망기간 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도상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아시아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5.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뒤를 아프리카 국가들(3.7%)과 중남미 국가들(2.6%)이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소련 연방지역은 연평균 2.2%로 가장 저조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인 GDP 성장은 2000-10년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세계 경제의 점점 더 중요한 경제권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 GDP에서 아시아 지역의 비중은 전망기간 24.2%에서 29.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도 예상외로 연평균 6.9%의 성장률을 보이며 최근 몇 년간 중국을 앞지르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세제 재편 등 주요 경제개혁에 대한 지속적 추진과 인프라 투자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2000-10년 10%에 육박하는 고성장 이후 향후 10년간 연평균 5.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세계 GDP 비중은 2018년의 13%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2028년에는 17%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중국이 과거보다 국내 소비자 중심적이고 시장 중심적인 경제로 구조적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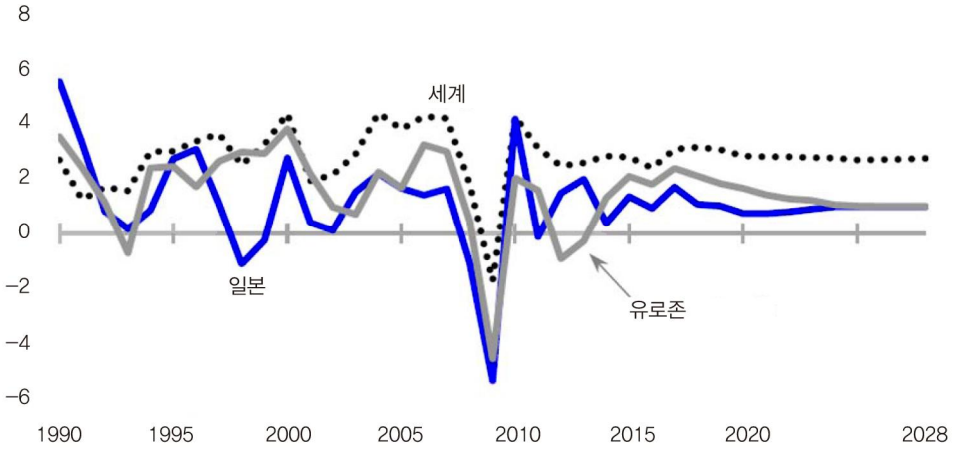
라틴 아메리카의 GDP 성장은 이 지역의 일부 경제 대국들의 매우 더딘 성장과 불황으로 특징지어지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은 향후 10년 동안 평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브라질 경제는 복잡한 정치 환경 속에서 지난 몇 년간의 깊은 불황에서 반등하여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국의 경제성장은 어려운 경제난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저조할 전망이다. 한편 멕시코 경제는 북아메리카 수출시장과의 인접성 혜택으로 연간 2%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은 연간 평균 3.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장률은 2000-07년 평균 6%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장기적 성장률인 3% 보다 높은 수치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두 나라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나이지리아는 정치적, 경제적 곤경으로 인해 2000년대 초와 비교하면 상당히 느린 성장세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관점에서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경제성장은 지속해서 생활수준을 높이고 빈곤율 증가를 둔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나이지리아 이외의 서아프리카 공동체는 이웃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계속해서 앞지르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이들 국가의 장기적 경제성장 추세율인 약 4%를 넘어 평균 5.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도 전망기간 연평균 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소련 지역의 성장 전망은 향후 10년간 2.1%에서 2.4%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성장률은 2000-15년 동안 이들 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인 4.5%와 비교하면 현저히 하락한 수치이다. 러시아는 재정 안정성과 석유 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통화의 약화로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과 맺은 협정은 정부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어 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선진국의 GDP 성장률 전망, 일본과 유로존

단위: %



자료: USDA(2019). p.11.

선진국의 경제성장은 수출업자들을 위한 개선된 시장여건과 지속적인 성장세를 견인할 견실한 기초토대를 마련하여 전망기간 말까지 1.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경제 리더로 남아있는 반면, 유로존의 성장은 2018년에 강세를 보였지만, 전망기간 말쯤에는 일본의 경제성장 수준보다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본이 2017년 달성한 경제성장은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향후 연간 약 1%라는 장기적 성장세를 회복하였다. 한편 선진국은 고령화로 노동력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생산성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장기적 성장은 과거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제성장은 전망 기간 내내 선진국 대부분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제의 건전성, 국제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 및 과거 대비 달러 강세로부터의 상대적 완화가

수출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과되고 있는 무역 관세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수출시장의 성장은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노동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와 생산성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 성장은 과거 평균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미국 내에서도 2%를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향후 10년 동안 금리가 인상을 불러오는 통화정책을 계속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은 2018년 유로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강력한 성장(2017년 이후)인 2.2%를 약간 밑도는 성장을 지속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포퓰리즘 증가와 정치적 분열은 경제 및 정치 개혁을 위한 EU 정상들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은 2017년 기대치 못한 평년 수준의 성장에 이어 연간 1% 안팎의 장기 평균 성장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2017년 일본 경제는 긍정적인 대외경제 환경과 엔저에 따른 소비와 기업 지출을 장려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자산매입으로 이득을 보았다. 한편,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전망기간 내에도 2%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1.2. 인구

세계 인구 성장은 향후 10년간 지속해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망기간 연간 성장률은 1991–00년 1.4%, 2001–10년 1.2%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1%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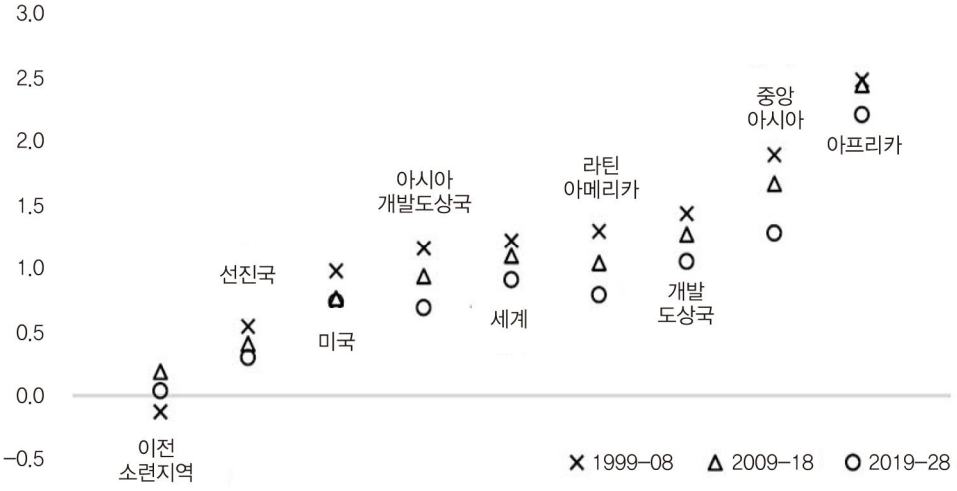
선진국들은 향후 10년간 연간 0.3%의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인구증가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인구증가는 선진국 평균 수준보다 두 배 이상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평균 0.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부분적으로 이민에 따른 인구 증가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연합은 향후 10년간 평균 0.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의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일본의 인구 성장도 연간 0.3%에서 0.4% 사이에 그칠 전망이다.

개발도상국의 인구증가율은 부분적으로 소득증가와 높은 수준의 기대수명 때문에 이전 수십 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성장률은 전망기간 매년 거의 1.1%로 세계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세계 인구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79%에서 2028년 83%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는 매년 2.2% 이상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매년 2.4%의 인구증가율이 예상된다. 비록 아프리카의 인구증가율은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라틴 아메리카 및 아시아와 비교해 볼 때 감소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라틴 아메리카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0.8% 미만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1991-00년 이후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아시아도 라틴 아메리카와 마찬가지로 1991-00년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간 약 0.7%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림 5> 지역별 10년 평균 인구증가율 전망

단위: %



자료: USDA(2019). p.12.

한편, 중국과 인도는 2018년 기준 세계 인구의 36%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두 나라의 인구 성장은 감소 중이며, 전망기간 말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두 나라의 인구 비중은 35%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1.3. 달러 가치

2018년 미국의 농산물 무역 가중치가 반영된 달러화의 평균 가치는 2004년 이후 최정점인 2017년 가치와 비교하여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달러화는 전망기간 내내 2010년대 초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많은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통화가 2015년 달러화 강세 기간 손실된 가치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 강세에 대한 기대는 금리 상승 전망과 결합한 미국 경제성장의 낙관론에 의하여 지지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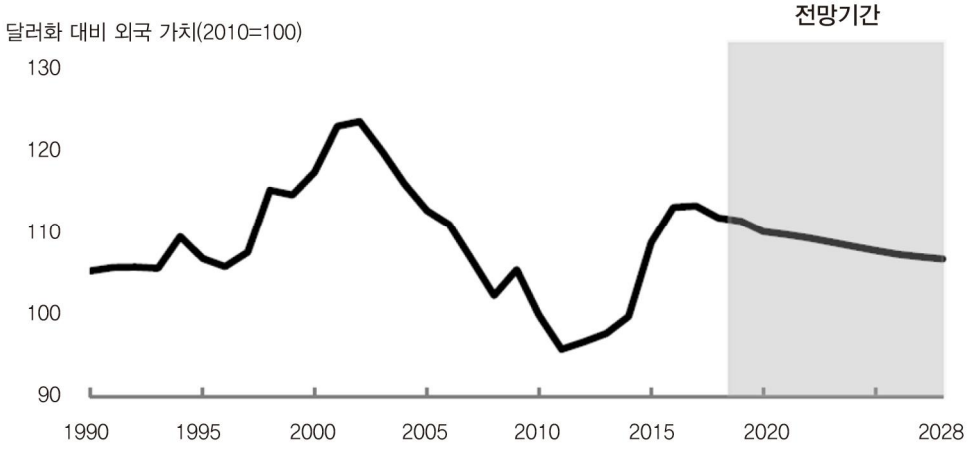
2018년, 달러화는 유로존에서 실질적으로 4% 이상 하락했고, 일본 엔화에 비해서는 거의 1.5% 하락하였다. 반면에 호주 달러(1% 이상)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였으며, 캐나다 달러화에 대해서는 0.3% 평가절상되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상대적 강세에 따라 달러화 가치는 캐나다와 호주 달러, 일본 엔화 대비 평가절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로존에 대해서는 평가절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들 통화에 비해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하락할 전망이다.

달러화는 2018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실질적으로는 평가절하되었다. 중남미 통화 대비 달러화는 평균 4% 가까이 떨어졌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화와 비교해서는 거의 5% 가량 하락하였다. 반면에 중동 국가들의 통화에 비해서는 3.5% 가량 상승하였다.

대체로, 실질 환율은 전망기간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는 2019년과 2020년에 멕시코 페소화 대비 3% 이상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에는 반등하여 이후 10년 동안 서서히 절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달러화는 브라질 리알화 대비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2% 이상 절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후 나머지 전망기간 동안에는 0.2% 미만으로 절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위안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는 전망기간 첫해에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위안화 가치 손실을 완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소비 지향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달러화 가치가 위안화 대비 평가절하될 전망이다.

<그림 6> 미국의 농산물 무역 가중치가 반영된 달러화 가치



자료: USDA(2019). p.13.

2.2. 농업부문 가정

2.2.1. 미국의 농업정책

2014년 「농업법」은 전망기간 시행된다고 가정한다. 마찬가지로, 현재 시행 중인 무역관세는 향후 10년 동안 유효하다고 기대하며, 보존유보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1]에 등록된 경작면적은 2014년 「농업법」에 따라 제정된 최대 수준인 2,400만 에이커 바로 아래 수준으로 가정한다.

최근 곡물 가격하락은 2018년까지 정부의 직접 지불액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는 2014년 미국 「농업법」상의 수입손실보상제도(Agricultural Risk Coverage, ARC) 및 가격손실보상제도(Price Loss Coverage, PLC)에 따른 지급액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2018년 이후 정부 직접 지불액은 2001-10년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최근 및 예상 농산물 가격이 향후 직접 지불률을 낮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 보존유보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은 미국의 대표적인 환경보전 정책임. 1985년 「농업법」에서 도입된 CRP는 농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토양침식도가 높은 경작지(High Erodible Land)를 농민에게 매년 임차료와 표토 보전 비용의 50%를 지불하는 대가로 토양침식도가 높은 경작지를 생산에서 10년 동안 배제시키는 장기농지은퇴프로그램(Long-term Land Retirement Program)임. 즉, 농지소유자와 정부 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농지소유자는 10년간 농경지를 생산목적(긴급가축방목용은 허용)으로 사용치 않기로 약정하고 정부의 보조금 수혜대상이 되는 것을 말함(위키백과).

2.2.2. 미국 바이오 연료

바이오연료 전망은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2018년 11월 30일 발표한 2019년 셀룰로스 바이오 연료[2], 차세대 바이오 연료[3] 및 총 재생 연료에 대한 최종 재생 연료 표준안 발표 이전에 작성되었다. 따라서 바이오 연료 전망은 2018년 6월 26일부터 바이오 연료 요건을 제시한 미국 환경보호국의 규정에 기반한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대부분의 에탄올은 옥수수를 공급 원료로 사용한다. 에탄올 생산량은 전망기간 중 국내 사용과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망기간 초기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전망기간 에탄올 수출 증가가 국내 소비 감소를 완전히 상쇄하지 못하여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에탄올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수요는 미국 전체 옥수수 사용량의 최소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에탄올 생산은 옥수수 시장에서 강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체 가솔린 소비 감소 전망과 10% 에탄올 "혼합한도(ethanol blend wall)"은 향후 10년간 미국 내 에탄올 사용을 제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미국의 대부분의 가솔린은 계속해서 10% 에탄올 혼합물 조건을 이행하여 15% 에탄올 혼합 시장의 성장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환경보호국이 관리하는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 사용량 요건은 2018년에 21억 갤런으로 설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이 수준을 유지하나 2020년 이후부터는 24억 3,000만 갤런으로 증가하여 2028년까지 이 같은 수량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 용량 요건을 초과하는 바이오 디젤 및 재생 디젤의 일부 생산은 비특정 고급 바이오 연료 요구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였다.

한편, 미국에서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대두유는 향후 10년 동안 연간 10억 갤런 이상의 바이오 디젤 생산 위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다른 공급 원료로는 옥수수 기름, 기타 1차 사용 식물성 기름, 동물성 지방, 재사용 식물성 기름 등이 있다.

---

2) 셀룰로스 바이오 연료는 재생 바이오매스로부터 추출되는 리그닌 헤미셀룰로스 셀룰로스로부터 생산되는 재생 연료로 최소 기본 배출 저감이 가능한 재생 연료임.
3) 차세대 바이오 연료는 옥수수 전분 추출 에탄올 이외의 재생 연료로 최소 기본 50% GHG 배출 저감이 가능한 재생 연료임.

2.2.3. 국제 정책

농산물 무역 전망은 2018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무역 협정, 위생 및 식물 위생 관련 규제 및 국내 정책이 전망기간 내내 유효하다고 가정한다.

러시아가 서방(EU, 미국, 캐나다 포함)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입 금지를 2014년 8월에 시행하였고, 이후 매년 갱신해오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러시아가 국내 돼지고기와 가금육 생산을 촉진하고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입 금지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8년에 거의 모든 미국산 농산물에 25% 이상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다. 전망에서는 2028년까지 중국이 관세 철폐를 언제쯤 단행할지에 대한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관세가 전망기간 내내 유효하다고 가정한다. 중국은 또한 이번 농업 전망 이후에 농업 생산 통계 중 많은 부분을 수정했는데, 이 부분은 이번 전망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농업전망에서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출세를 완화 또는 철폐하기 위해 아르헨티나가 시행한 새로운 정책 효과를 반영하였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대두, 대두유, 대두박은 2018년 1월 이후 수출세가 월 0.5%씩 인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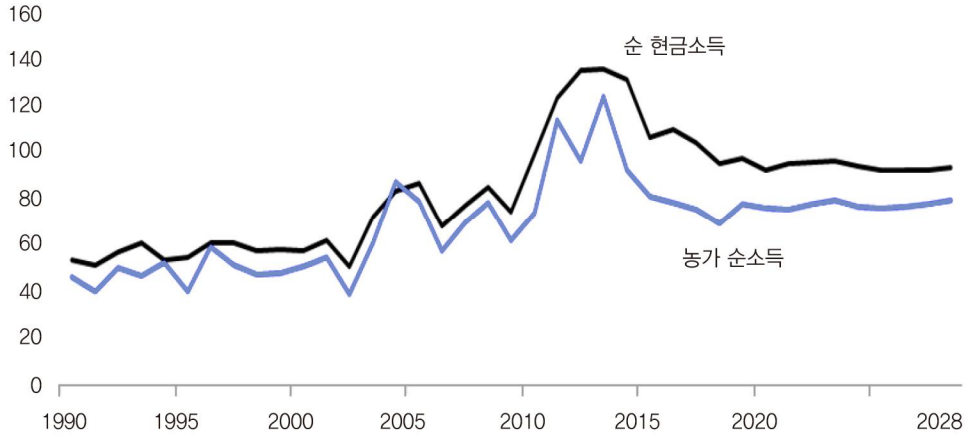
3. 농가소득 전망

3.1. 농가소득

농가 순소득은 2014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2019년 이후 총 지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 순소득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의 순 현금 수입은 단기적으로 2018년 감소하지만 2019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2028년까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장기 수요를 뒷받침하는 지속적인 국내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농가의 농산물 판매 현금수입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림 7> 농가 순소득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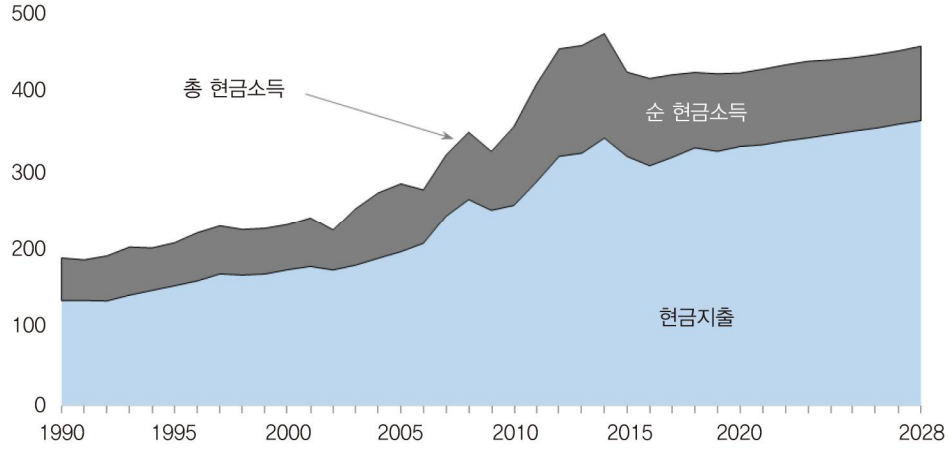
단위: 10억 달러



자료: USDA(2019). p.47.

<그림 8> 농가 현금소득 전망

단위: 10억 달러



자료: USDA(2019). p.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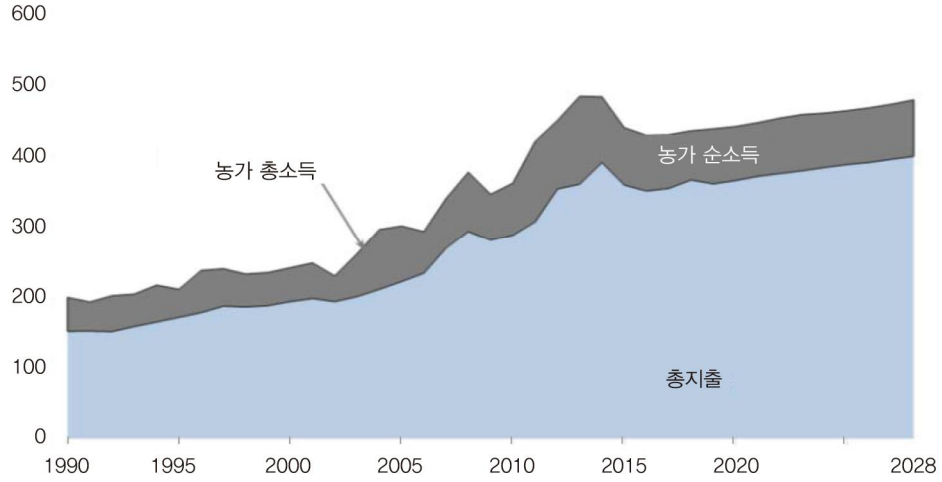
정부의 총 직접 지불액은 2019년 102억 달러, 2020년 89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농산물 가격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직접 지불액은 2021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2년 이내에 다소 감소 하지만, 이후 남은 전망기간 동안 완만한 보합세를 이룰 전망이다.

수입손실보상 지불액은 2018년 15억 달러에서 전망기간 말까지 2억 1,500만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감소분은 가격손실보상 지불액이 2018년 20억 달러에서 2028년까지 거의 59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이다.

농가의 총 생산비는 사료 및 가축과 유지종자 구매에 대한 지출 감소로 2019년에 3,600억 달러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후 전망기간 전체적으로 유가, 금리 및 물가가 모두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명목 농업 생산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농가 총지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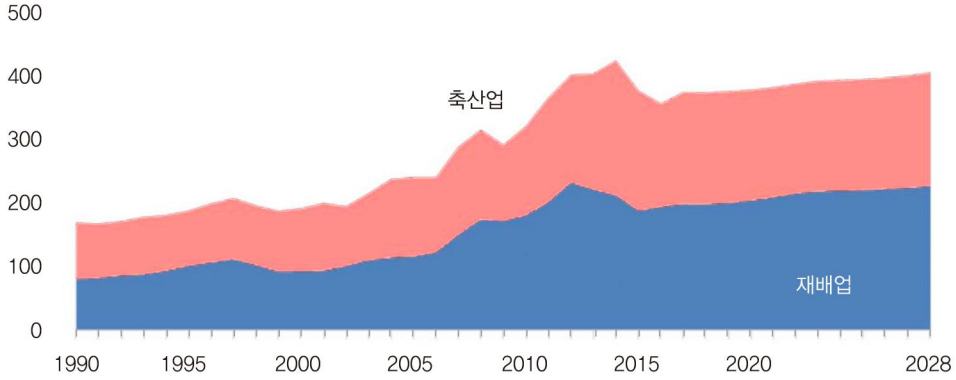
단위: 10억 달러



자료: USDA(2019). p.48.

<그림 10> 농가 현금수입 전망

단위: 10억 달러



자료: USDA(2019). p.48.

3.2. 직접 지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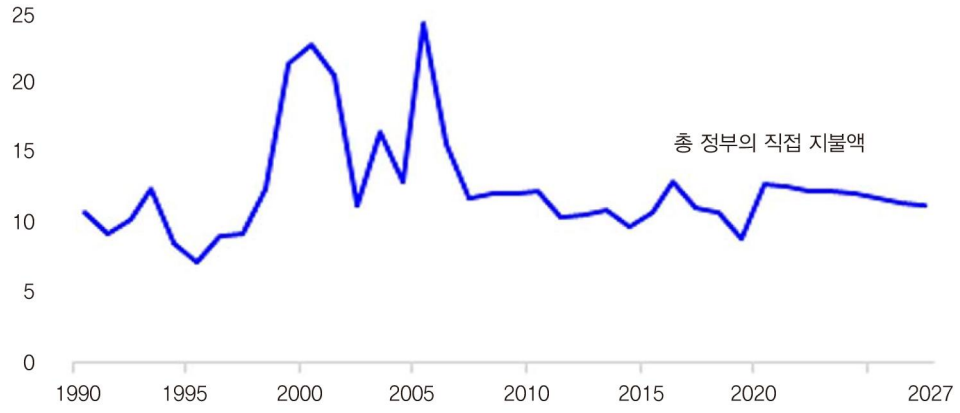
정부의 직접 지불액은 2019년 89억 달러로 하락하지만, 2020년도 지불액은 생산 농가가 수입손실보상 프로그램에서 가격손실보상 프로그램으로 직불제 참여형태를 변경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불액은 2028년까지 5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존유보제, 수입손실보상 및 가격손실보상 지급액은 전망기간 동안 농업부문에 가장 많은 정부의 직접 지불액을 제공할 전망이다.

보존유보프로그램에 등록된 식부면적은 2014년 미국 「농업법」의 입법 최대치인 2,400만 에이커보다 근소하게 낮은 수준일 것으로 가정한다. 곡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보존유보제 내 토지의 평균 임대료도 증가할 것이므로 보전유보제 지급액은 2018년 21억 달러에서 2028년 24억 달러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존유보프로그램과 가격손실보상 프로그램에 따른 지불액은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2018년 약 35억 달러에서 2019년 2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는 많은 농가가 수입손실보상 프로그램에서 가격손실보상 프로그램으로 직불제 참여형태를 변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존유보프로그램과 가격손실보상 프로그램에 따른 지불액은 41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손실보상 프로그램과 가격손실보상 프로그램의 지불액은 이후 전망기간 62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전체적인 정부 직접 지불액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정부 직접 지불액 전망

단위: 10억 달러



자료: USDA(2019). p.49.

3.3. 농가 생산비

가축과 종자 구매 감소로 2019년 전체 농가 생산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이후 생산비 상승은 2028년까지 전체 물가상승률보다 비교적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살펴보면, 농업용 투입비용, 기타 제조용 투입비용, 기타 비농업용 투입비용은 일반 물가상승률보다 느리지만, 이자비용과 연료비, 유류비 등은 동 기간 일반 물가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도 전망기간 일반 물가상승률보다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긴축정책으로 인한 금리 인상과 함께 농가부채의 증가를 반영한 결과이다.

한편, 연료와 석유 생산비용도 원유 가격이 다소 오르면서 2018년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경작지 감소, 미국의 질소 비료 생산성 향상 및 상대적으로 낮은 천연가스 가격은 단기적으로 비료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료비는 전망기간 후기 인플레이션율 보다 느리게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USDA. 2019.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28. USDA.

임정빈. 2014. “2014년 미국 「농업법」 환경보전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세계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고사이트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